

☞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무더운 7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곳 학교에서는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더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전체를 페인트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고, 학생들이 사용하던 책상과 각종 집기의 낡은 부분을 보수하여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학기에 등록하는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실 배치도 다시 하고, 새로 오시는 선교사들을 고려하여 책상 배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건설 현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들을 분주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 마닐라에 위치한 저희와 같은 선교 기관에 예상치 못한 악성 Computer Virus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기관 전체의 업무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Computer를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는 참으로 부담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의 System과 저희가 이곳에서 운용하는 System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Virus를 대비하여 다양한 보안 장치를 해 왔지만, 마침 Computer 사용이 비교적 덜한 이번 방학을 통하여 제가 담당하고 있는 100여대의 Computer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땅 끝에서 독특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곳까지도 Computer Virus의 공격은 예외가 아니어서 무능한 저로서는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 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 105:4)**

Virus 위험은 이곳 학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Computer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워낙 이곳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부족한 저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마치 외딴 시골에 근무하는 의사가 종합 병원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Computer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문제를 저에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 역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덕분에 선교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Computer들을 찬찬히 살펴 볼 기회가 많았고, 이들이 Computer를 사용하

는 흔적들을 보면서 감사하게도 저만이 알 수 있는 이들의 '반듯한 마음'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선교 기관에는 이미 동일한 정품 프로그램을 Computer 수량만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곳 선교사들은 개인 필요에 따라 동일한 정품 프로그램만을 미련하게(?) 새롭게 구매하는 것을 보면서 초기에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다양한 프로그램들 모두 가지고 왔는데, 물론 이 중에 정품도 있기는 하지만 고가품일수록 복사한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동안 정품을 복사한 것들을 쉽게 사용해 왔던 저로서는 이들을 통해서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해도,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그 '과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자를 이곳까지 불러서 부끄럽게 하시는지 마침내 제가 아끼던 제 개인 Note PC가 충격에 의하여 파손이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0)**



해변 교회의 토요 어린이 성경 암송 학교가 6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우려했던 것들이 매주 지나면서 도리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암기’라는 것이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니고, 더더욱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는 것이어서 모두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모든 일이 기우 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한국 아이들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이 곳 아이들도 만만치 않아서 참여하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현재까지 6개의 성경 구절을 모두 연속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앞에서 암송한 구절을 눈을 감거나 또는 천장을 바라보며 정경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틀릴 때마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재정경을 받기 위하여 뒷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다시 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삼하 23:2)

나이 탓을 하며 열심히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암송을 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벌써 대표로 기도를 하는 교사의 기도애 암송한 성경 구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기도가 더욱 더 힘이 있음을 서로가 알 수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성경 암송의 기쁨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욕이 넘쳐서 초기 선정한 10개의 암송 구절 중에서 앞으로 암송 해야 할 남은 구절들은 재선정을 해서 기존의 비교적 짧은 성경 구절이 아닌 단락 형태로 암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일을 따라 가려면 아무래도 암송을 같이하는 제 자신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아주 많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한 이에 대한 표현이 인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을 한 이후에 받는 작은 선물에 너무 감사해 하고,

또한 프로그램 중간에 나누는 Snack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도리어 제가 부끄럽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그 감사함을 우리 주님께 풍성히 표현하게 될 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박인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 3:16)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Thank You So Much!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여행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사역지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리웠던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흠뻑 받는 참으로 꿈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연지)

Prayer Request



-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 기도의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채워지도록
- 흠어져 있는 두 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하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